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1호

[강신욱 교수의 스포츠칼럼]

학교체육을 진심으로 살리려면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조명우·KUSF)]

KUSF, 대학운동부 주거 환경 실태 조사 발표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주요 정책과제 공유

문체부와 17개 시도, 스포츠로 지역 활력 높인다

김민지 스포츠월드기자

[한국관광공사, TF 구성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떠오르는 스포츠 관광..전담 조직 신설해 육성

김다미 연합뉴스기자

[체육계 주요 현안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남은임기 1년' 이기흥대한체육회장 '지금 3선 연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업무선관위 컨트롤'

노찬혁 마이데일리기자

[쿠키청년기자단]

야구 보려면 지역 비하부터? 혐오에 노출된 청년들

정세하 쿠키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강신욱 교수의 스포츠칼럼] 학교체육을 진심으로 살리려면



3년 전에 나의 중국인 박사 원생이 '한중일 학생선수 학부모의 교육기대 비교' 라는 논제로 학위를 받았다. 여러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보고 되었는데 특별히 눈에 띈 것은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가 국가대표 선수, 혹은 프로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의 학부모들은 체육지도자, 일본의 학부모들은 사회의 일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자녀 학생선수의 미래상에 대한 국가 간 기대차가 존재하는 조사 결과였다.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나의 경험과 현실을 돌아보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졸업 후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우선 희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그것도 국가대표급으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 선수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그야말로 올인 한다. 이로 인해 학교 운동부는 최저학력제, 합숙소 폐지, 지도자와 학부모 간 갈등, 운동부 폐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대립과 좌절에 빠져 버린다. 프로 종목인 축구, 야구, 골프를 제외하고 또 다른 프로 종목인 농구, 배구를 포함해 올림픽 효과 종목이었던 레슬링, 유도, 복싱, 하키, 핸드볼 등 거의 전 종목에서 학생선수들과 팀 수가 이미 반 토막 난 지 오래지만 학교 운동부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기에 너무 무력할 정도로 학교 운동부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심하게 말해 타살이 아니라 자살 직전에 놓여 있다. 대안으로 학교 밖 스포츠클럽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축구나 농구 등 극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이 학교 운동부의 미래 대안일 것으로 판단하는 체육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학교 운동부는 공교육 영역인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두 가지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교 운동부는 분명히 공교육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지금과 같이 지도자의 인건비로부터 선수들의 훈련비, 대회 출전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공교육이 아니다. 마치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경비를 납부하고 국어, 영어, 수학강사를 모셔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교육의 전형적인 형태인 셈이다. 모든 학교 운동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축구, 야구를 비롯해 상당수 종목의 초, 중, 고 운동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고 자녀의 운동권이나 상위 입상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은 거부되거나 극심한 갈등에 부딪힌다. 또한 학교 운동부의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로의 발걸음을 주저하거나 아예 얼씬도 안한다. 교장선생님 같은 학교 운영자들도 운동부에 대해 특별한 의식이 없을 경우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장 계속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학교 운동부의 그 훌륭한 교육 기능이 온전히 무시된 채 학부모들이 경비 일체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은 운동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런 기형을 방치할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자녀 선수들 중 불과 10% 이내만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 운동부가 공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종결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공교육의 책무임을 재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교육 활동답게 지도자의 인건비로부터 훈련비 등을 정부가 각별히 지원해야 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탁상행정으로 학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각급 교육청과 체육회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에서 지원 대상과 수준을 좀 더 확대하여 향후 공적 차원에서 학교 운동부를 재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문체부의 예산 증액이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스포츠투토와 같은 국민체육 진흥 투표권의 판매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교 운동부에 집중 투입하면 좋겠다. 그와 함께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학교 운동부나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3년 이상 무기직으로 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에 지도자 처우가 현재보다 아주 낮아질 경우 당분간 투 트랙을 운용하여 좀 적은 급료지만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1년 계약직으로 학부모의 지원에 의존할 것인지를 지도자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학부모나 학교, 그리고 지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에 재능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입 장벽만 높일 뿐이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는 냉정히 살펴야 한다. 두말할 것 없이 정답은 학생선수들이다. 만일에 한 예로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를 그토록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어른들은 진지하게 이 제도의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운동만 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을 위해 최소한의 소양 교육을 시키려던 교육자들의 의도가 대학과 달리 출석률이나 보고서 등이 무시된 채 시험 성적이라는 학업 결과만을 근거로 하는 최저학력제에 대해 수많은 지도자, 선수, 학부모들이 그토록 반대한다면 한 학기 유예가 아니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에 걸맞은 대안을 진지하게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운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오후 운동권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어떨까 싶다. 본인이 단국대학교 교수 시절 체육위원장과 운동선수들로 구성된 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모든 운동선수들은 오전에 강의, 오후에 운동에 집중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오후 운동은 모두 학점제로 운영하였는데 운동부 감독들을 담당 교수로 위촉하여 이들이 해당 종목의 선수들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대학 선수들의 소양교육은 물론 운동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은 현재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중고 학생선수들의 일부가 오후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아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학생선수들을 위해 단국대학교의 이런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또 다른 갈등 요소로서 합숙소 문제도 학생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풀어야 한다. 교내 합숙소를 폐지한 덕에 교외 합숙소가 버젓이 운영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학부모 부담, 더 많은 일탈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에도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나야 학생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늘 아슬아슬하다. 원할 경우 일반학생들과 학생선수들이 교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중고등학교 현장에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초등학교까지는 운동에 집중하던 학생들도 중학교에 진학하면 운동을 중단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야 한다. 운동이나 공부냐를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학교 운동부는 참된 인간 교육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운동부 활동이 자녀의 인생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학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운동부를 찾을 것이다. 동네 태권도장과 줄넘기 학원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선수 만들려고 보내지 않는다.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 프로선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학교 운동부가 크게 도움이 된다면 운동선수 모집 시 학부모들은 날밤을 새울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약, 섹스, 폭력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녀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호하는지를 알게 되면 학부모들은 앞다투어 운동부실을 찾을 것이다. 야구부, 레슬링부, 핸드볼부, 스키부에 50명, 혹은 100명의 선수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 그들 중에서 기능과 체력이 좀더 뛰어난 학생들은 운동선수로의 길을 계속 가면 된다. 학교 운동부의 긍정적인 교육적 기능이 동의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각별한 행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교장선생님이나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드시 부활해야 하며 자원이 부족한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1교 1기, 그리고 1인 1기도 건강한 시민 양성 측면에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2백 년도 한참 전인 1815년에 천하의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투에서 끝장낸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 전쟁은 이튼 스쿨의 운동장에서 이긴 것"이었다는 연설의 의미를 한번은 진지하게 되새겨보자.

(글 :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헬스인뉴스(<https://www.healthinnews.co.kr>)

자료 출처 : <https://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7>

대학운동부 주거 환경 실태 조사 발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조명우·KUSF)가 '2023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KUSF 전국 회원대학 학생선수 2,349명(남 1808명, 여 541명), 지도자 224명(남 208명, 여 16명), 행정가 71명(남 51명, 여 20명) 등 총 2644명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참여하여 집계된 자료다.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85.1%는 합숙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형태는 운동부 전용 기숙사(47.7%), 일반기숙사(29.3%), 개인 숙소(11.3%), 교내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8.1%) 순으로 조사됐다.

합숙소 전담 관리자는 사감(교직원)(42%), 지도자(35%)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종목 합숙소는 대부분 교직원이, 단체종목 합숙소는 대부분 지도자가 전담 관리자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분은 대학이 전액지원(35.2%), 대학이 일부지원(20.9%)으로 나타났다. 27.1%는 자비부담으로 조사됐다.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의 77.6%는 합숙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합숙소는 편히 쉴 공간(84.9%), 편히 학업 할 수 있는 공간(78.2%)이라고 답변했다. 합숙소가 인권 보장을 받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79.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합숙소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 주거환경은 교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30.3%)로 드러났다. 합숙소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에 대한 사항으로는 체력단련장 시설의 노후화와 별도의 세탁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부대시설에 대한 물리적 지원, 자율성이 보장된 인권 보호가 중심이 된 합숙소의 자체 규정 관련 개선에 대한 사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USF는 이번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대학스포츠의 주축인 학생선수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공간권, 자유권, 평등권, 안전권, 참여권, 문화교육 및 건강권 중심)을 제작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 확산할 예정이다.

KUSF 이종현 사무처장은 “합숙소에서 권리보장,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주거환경 운영 규정을 보다 더 면밀히 살펴 대학에서의 학생선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17개 시도, 스포츠로 지역 활력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도 체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힘입어 4년 만에 열린 자리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중앙-지역간 협업과제들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는 노후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 지속 증가,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관련 협조 요청 등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개선 등 국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대회 개최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등도 안내하고,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시의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지역 성장형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등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전국체전 개최시 많게는 천억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시설비 200억원, 운영비 40억원 내외로 국비 한도액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방식 변경 등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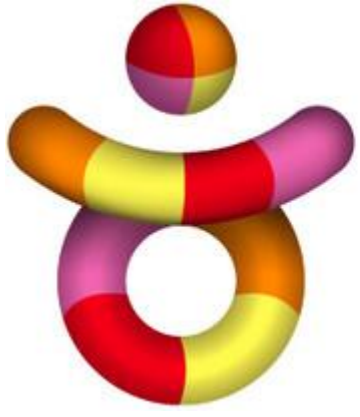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30%) 확대 건의와 관련해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을 적용하는 등 매칭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비 우선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전국의 스포츠 이벤트가 체육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문체부는 올해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시기에 맞춰 전국 규모의 통합 예술경연인 '대한민국 예술축전'을 연계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문화, 관광이 융합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유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스포츠는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정신을 통해 규칙 준수, 희생,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춘 실내체육시설 확충 지원,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광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 등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전달의 모세혈관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떠오르는 스포츠 관광...전담 조직 신설해 육성

한국관광공사가 스포츠 관광을 전담할 '스포츠 관광 활성화TF(TF)'를 신설한다.

한국관광공사는 3월15일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는 국제관광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2개 분과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스포츠관광 유치반은 e스포츠, 태권도, 자전거 등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을 관광과 연계해 해외 홍보 및 상품개발,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내스포츠관광 육성반은 성장 가능성 있는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내국인 대상 스포츠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포츠와 관광 두 분야의 민관 역량을 결집해 2024년을 스포츠 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경쟁력을 갖춘 e스포츠와 태권도, 자전거, 트레킹 등의 종목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형 스포츠 대회를 활용해 해외 스포츠 관광객과 동호회 단체 등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협업사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스포츠 종목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개최되는 '테마관광박람회'에 스포츠 관광 테마를 신설한다. 또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는 소통메뉴를 개설해 유관업계의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겸 스포츠관광활성화TF단장은 "스포츠 관광 전담조직을 만든 것은 앞으로 스포츠 관광을 인바운드 시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세계에 한국이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e스포츠협회 등이 체결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협업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1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지금 3선 연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업무 선관위 컨트롤"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연임에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주요 현안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기흥 회장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기흥 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관련 정관 개정 추진, 임원 연임 제한, IOC 위원 선출 과정 및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사임, 중앙 정부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문체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대해 브리핑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이 회장은 "그 문제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5일에 총리님과 말씀 나누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총리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체육계에는 정치계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2000억 국비가 투입되는 새 국제 세트장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7개 지자체들 중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기흥 회장을 찾아 유치를 당부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풍 때문에 공정 심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거는 우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미래사를 쓰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또 이사회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러 절차를 거칠 것이다. 특히 내일 7군데 군수님들을 다 오시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체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3선 이상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원들이 모두 이 회장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회장은 "임기가 정확하게 1년 남았다. 1년이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을 수 있다. 여기서 내가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원은 혼자 할 수가 없다. 공정위원을 뽑을 때에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 구성을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장 계속



이날 이기흥 회장은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관련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의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1년 이상 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기흥 회장은 "누가 '자기가 회장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판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다. 실제로도 8명이 당선됐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체육회마저도 정치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회장이 나갈 때에는 사임을 하고 나가야 되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스포츠위원회 국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은 국회에서도 하고 이미 전국의 체육인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곳하고 협업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가 돼야 한다.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선진형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임 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부작용과 스포츠 기본법 개정, 문체부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정책 기본법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 연임 제한을 없앴을 때 그동안에도 잘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인권보호 세부 과제 16개 중 2개가 미완료 상태다. 한 가지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문제고 하나는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계획 수립 및 관리다. 현재 지도자 자격증은 강화된 상황이며 88개의 협력 단체 중 27개 정도가 규정 제정 미완료로 남아 있다.

이 회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교육과 또 권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기간 안에는 할 것이고 80억 가까이 79억 정도 들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상반기가 지나가면 다 될 것이다. 전국의 도모의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경기단체 시군구 시도 대한체육회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야구 보려면 지역 비하부터? 혐오에 노출된 청년들 [쿠키청년기자단]

한국 프로야구 응원문화에 뿌리 깊은 지역 혐오와 과도한 비방이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 몰랐던 지역 혐오를 야구에 입문하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는 20대 관람객의 신규 유입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발표한 2022년 프로야구 관람객 성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신규 관람객이 2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구단 중 9개 구단에서 20대의 신규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는 신규 여성 팬의 비율이 65.7%에 달했다.

한국 야구의 지역 비하 문화, '청년 뉴비'만 모른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KIA 타이거즈를 응원한 김가연(25)씨는 야구 생중계를 보기 전 꼭 실시간 댓글 창을 끈다. 불쾌한 지역 혐오 표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다. 댓글 창을 끄는 순간에도 네다홍('네 다음 홍어'의 줄임말), 알보칠('알고 보니 7시'의 줄임말, 지도상 호남 지역의 위치로 비하하는 은어), 전라디언 등 호남 혐오 표현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이 같은 지역 비하 표현은 특정 선수나 구단, 경기 상황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등장한다.

김씨는 "현실에선 지역감정, 호남 혐오와 관련된 말을 들을 일이 없다"며 "야구만 틀면 홍어, 7시(호남 혐오 표현)와 같은 혐오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어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구단들 상황도 비슷하다.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 자이언츠, 대구가 연고지인 삼성 라이온즈도 '쌍도' 같은 지역 비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김씨는 "실시간 중계 댓글 창을 1분만 봐도 모든 팀을 향한 멸칭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며 "한국 프로야구는 지역 혐오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혐오가 굳어진 한국 프로야구의 응원문화는 요즘 청년들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전 세대에 비해 지역 혐오에 덜 노출된 청년들이 야구를 통해 새롭게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 사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용 안 함'이라고 답한 20~30대 청년층은 39.6%로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40~50대 장년층은 13.2%, 60~70대 노년층은 4.8%에 불과했다.

응원팀이 아니면 과도하게 견제하는 야구의 네거티브 응원문화도 문제다. 강희주(24·가명)씨는 지난해 자신이 응원하는 LG 트윈스의 우승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했다. 29년 만에 우승했어도 "9개 구단이 LG 트윈스 우승을 바라지 않는다", "LG 트윈스는 왕따 구단" 등 축하보다 비방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우승팀을 향한 가벼운 질투보다 모두가 특정 구단을 욕하는 하나의 문화라고 느꼈다. 강씨는 "단순한 견제가 아닌, 모든 구단의 팬이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이라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X(구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왕따 구단'을 검색하면 이유 없이 LG 트윈스를 비방하는 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과도한 특정팀 네거티브 문화를 극복하는 자정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온라인에 만연한 비방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댓글을 달면, '예민충이다', '뉴비(입문자)라서 뭘 잘 몰라 그런다' '알못(잘 모르는 사람)은 빠져라'와 같은 반응이 따라붙는다. 강씨는 "가끔은 야구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피로가 될 때도 있다"라며 "견제가 아닌,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야구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자정 작용 없는 한국 야구 문화, 혐오 키운다

지역 혐오는 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 혐오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안경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광주에 가기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해당 발언은 호남 지역을 해외처럼 취급하는 뜻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말이다.

논란이 일자 안 해설위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같은 논란이 반복됐지만, SBS 스포츠와 KBO의 징계는 없었다. 해당 사건 이후 SBS 스포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역시 하차하지 않을 줄 알았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계진이 나서서 지역을 비하하냐” 등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020년 5월 스포티비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 제목을 “KIA, ‘씩’ 했더니 ‘씩’하고 끝난 5병살”로 올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으로, 당시 실시간 SNS에 스포티비의 사과를 바라는 해시태그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스포티비는 사과 없이 조용히 제목만 수정했다.

야구 보려면 지역 비하부터? 혐오에 노출된 청년들 [쿠키청년기자단]

LA 다저스는 재키 로빈슨 데이에 모두 42번을 달고 경기에 임한다. MLB 공식 사이트

혐오 발언 근절에 앞장서는 MLB

미국 프로야구(MLB)는 팬과 구단 모두 혐오 발언 근절에 노력을 기울인다. LA 다저스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을 기념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그의 생일에 ‘재키 로빈슨 데이’를 연다. 재키 로빈슨 데이에는 모두가 그의 영구결번(해당 번호를 사용한 선수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빼놓는 번호)인 42번을 달고 경기를 진행한다.

또 2017년 MLB는 인종, 성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팬 운동 수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오 발언 근절은 MLB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MLB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뉴욕 양키스의 조시 도널드슨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리그 내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범 당시 지역 기반 스포츠였던 야구는 세대 간 전승되며 여전히 지역감정이 남아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문화는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기 힘들다. 지역 기반 응원 문화가 이어지며 응원 문화에서 혐오 발언들이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혐오 발언들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며 “내 팀을 응원하는 것과 상대 팀을 혐오하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박동숙 여사 별세,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과 함께 스포츠 외교 힘쓴 동반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64>

문체부 장미란 차관, 체육학계와 스포츠의 미래 논의

<https://www.news1.kr/articles/5353832>

마사회, 학교체육 승마 지원사업 확대 및 교원연수 [경마]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318/124026712/2>

무주 태권도원, 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03540&code=61121111&cp=nv>

'체육 발전에 큰 이정표'될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순항 중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1801>

제주도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9개 사업 선정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619>

광주체육회,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역대 최고 국비 확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8_0002664873&cID=10809&pID=10800

동작구, 유아스포츠기반확대...체육시설·어린이집 획기적인연합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6048>

우석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 기록화 사업 진행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8_0002665138&cID=10808&pID=108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